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교회입니다. 좋은 사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회장단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중구용산지방에서 주관하는 사경회가 10일(월) 낮 12시부터 상동교회에서 시작합니다.

1월 수요집회는 이성운 전도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교회의 한 해 재정을 확정하고 구역대표를 결정하는 구역회가 23일 12시 30분에 1층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오후집회 찬양시간에 봉사할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각종 악기 다루시는 분 환영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지난 6일(목) 전영규 장로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육식을 줄여 보십시오.

- \* 식 당 봉 사 : 장혜숙 박성실 원인혜 정경례 심상숙 이진식 최영혜
- \* 다음주식당봉사 : 백혜숙 김희우 허정호 정현숙 박경선 전충길 조순덕
- \* 설 거 지 봉 사 : 류준모 심호선 김기성 (다음 주 : 조선훈 강인숙 신진식 )
- \* 새 교 우 : 주경진(5남) 이윤정(7여) 한수현(7여) 김정훈(5남) 이진영(7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 해가 시작되었건만 바쁜 일상과 부질없는 생각에 짓눌린 채,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전염병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가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이 키우던 생명을 땅에 묻어야 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생명존중의 문화를 세워 주시고, 사람들의 탐심으로 못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이재문 김시영 장영숙 한상익 정영선 곽상준 최경미 김근종 정옥영  
박애순 박창운 허정윤 손성현 안경아 안정숙 조현권 박아영 김종락  
박영신 김수진 안보혜 김정애<sup>a</sup>무명

### 월정헌금:

김현영 정원석 이유선 방극숙 박상규 조병주 김시영 무명

### 감사헌금:

한완식 임정자 조선훈 강인숙 박두식 권혁신 배근수 김금순 전 응  
김성한 조영순 장대호 한숙경 김필순 이진희 안준용 곽새롬 이나래  
이우원 옥귀희 김신옥 곽권희 최종훈 김금하 정복순 문복순 김대규  
백성래 무명<sup>8</sup>

### 녹색꿈 헌금:

장원호 박성희 김준우 우순덕 양재성 임미심 임주빈 최현옥

### 생일감사헌금:

최희영 안종일 홍지희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심	심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조항미		
	김재흥	오자영		
	김기석	이건식		

## 미래로 부치는 편지

이문재

내 몸이 신전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스카이라인 너머 바라보며  
 몇 걸음 더 걷는다  
 고개 둘 넘어 읍내까지 걸어다니는  
 그 친구 떠오를 때마다  
 녹황색 채소 오래 씹는다  
 신전은 식물성이다  
 암송아지 눈처럼 순한  
 친구 눈동자 그리울 때마다  
 찹찹 마음의 주름들 펴진다  
 지하철 속에서도 눈감으면  
 신전으로 가는 길 보인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거든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쓰며 사십시오.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행동에 힘쓰십시오. 어느 날 문득 우리 삶에 찾아온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그릇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좋은 결과를 바라며 살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선한 결과에 앞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요한계시록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박혜경 권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김수진
		김아영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이승철 학생
	김기석 목사	방문성 장로	최성애 권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중수 임주빈 이순정 김금순 최현옥
	헌금위원	조병무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바닥짐

‘바닥짐 없는 배가 풍랑에 휩쓸리듯이’ 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먼 바다를 다니던 옛날 배들은 짐을 주로 배의 뱃바다, 곧 선복(船腹)에다 실었을 뿐만 아니라 짐이 없을 때는 아예 모래나 자갈 같은 것으로 선복을 채웠던 모양입니다. 오늘날의 배를 보면 용골이 아예 시커먼 쇳덩어리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흘수선을 높이고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중심이 늘 그리로 쏠리도록 바닥짐 대신에 아예 대가리가 흡사 돌고래 머리 같은 쇳덩어리를 달아놓은 형국입니다. 이것을 ‘밸러스트 키일’ 이라고 하더군요. ‘균형잡이 용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맨탈 밸러스트’ 라고 하면 ‘정신적 안정’을 뜻합니다. 밸러스트 키일은 배의 용골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용골에도 달려 있는 모양입니다.

배가 그 무거운 밸러스트 키일을 여분으로 밀창에다 달고 끌고 다니는 것은 비상시를 위해섭니다. 말하자면 유도의 낙법 같은 것이지요. 유도에 입문하면 먼저 낙법(落法)부터 가르칩니다. 이것은, 유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메다꽃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만 때로는 메다꽃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남을 잘 메다꽃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잘 메다꽃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락할 경우가 여러 각도에서 고려되지 않아도 좋았다면 비행기의 발명은 몇 십 년 앞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연전에 ‘서해 페리’ 사고가 떠오릅니다. 바닥짐의 부실한 데 견주어 승객들이 배의 한쪽으로 너무 몰렸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밸러스트가 무너진 겁니다. 설사 바닥짐이 실하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모두 갑판으로 올라가버리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균형잡기가 불안해집니다. 배나 자동차의 경우 무게중심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급커브 길로 자동차를 몰아보면, 무게중심이 높은 지프는 무게중심이 낮은 세단보다는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무게중심이 높으면, 배가 직선 항해를 할 때는 별 지장이 없지만 커브를 돌 때는 무게중심 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안전한 배라도 무게중심 선이 지나치게 기울면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실하면 방향을 바꾸느라고 배가 기울어져도 바로 자세를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낙법을 잘 치는 유도선수처럼요.

얼마 전에 나는 사람들의 독서 성향과 관련해서 속효성(速效性) 비료인 금비와 지효성(遲效性) 거름인 퇴비 이야기를 쓴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출판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투정 삼아서 주장하던 ‘양비론(兩肥論)’이기도 합니다.

나는 한 20년 동안 글 파는 일을 하면서 출판회사가 서고 무너지고 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 단명했던 대부분의 출판회사들이 속효성 비료인 금비를 땅에다 퍼 넣어 농사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망쳐버리고는 하더군요. 이미지 광고에 투자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회사의 이미지에 개질을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연료 절약을 통해서 효율을 올린답시고 밸러스트 키일을 떼어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출판회사의 바닥짐은 독자로부터 깊고 꾸준한 사랑을 받는 책이거나, 튼실한 이미지, 혹은 땅속 깊이 묻어둔 지효성 퇴비 같은 것일 수 있겠지요.

나에게는 사람을 새로 사귄 때마다 그 사람의 바닥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책을 들 때마다 나는 머릿속으로 먹이사슬 분포도 비슷한 정 삼각형을 하나 상정하고 그 책이 어디에 위치할지 한번 자리매김을 해보는 버릇도 있습니다. 책이 귀하면 정삼각형의 정점에 가까운 곳으로 자리매김이 될 터이나 불행히도 거기에는 독자가 적습니다. 이것은 먹이사슬의 정점은 소수의 대형 육식동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나기 어려워서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 ‘좁은 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좁은 문을 지난 책이 대개의 경우 한 출판회사의 바닥짐 노릇을 하는데 여기에서 출판 기업은 다른 기업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게 너무 순진한 발상이고 단순한 논리다 싶으면 이번에는 거꾸로 선, 같은 크기의 정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보시지요. 이 역삼각형을 정삼각형에 포개면 ‘다윗의 별’ 모양이 됩니다. 바로 나치가 유태인의 옷에다 그리던 까끄락 췌기가 여섯 개인 별 육망성(六芒星)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도 이 별이 하나 그려져 있지요. 이 별은 중심을 이루는 큼지막한 육각형 바닥짐으로 중심을 잡고 한 자리에서 빛나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여섯 방향으로부터의 변화에 대응하는 듯한 형세를 취합니다.

두 개의 삼각형을 역으로 교차시킴으로써 서로 대극하는 개념의 변화를 표상한 것일 터인, 이 육망성(★)은 내가 태극만큼이나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절묘하기가 그지없어서 오래 볼거리가 능히 될 만합니다.